

농어촌공사 9월, 한전 11월... 16곳 중 13곳 연내 이전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 일정... 신도시 위용 갖추는 나주혁신도시

3년 전만해도 허허벌판이었던 나주 빗가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가 어느덧 도시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 오는 15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작으로 이달에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공공기관 3곳이 혁신도시 내에 동지를 틀게 된다. 오는 11월 국내 최대 공기기업인 한국전력공사, 12월 한전 KDN이 이전을 마무리하면 전체 16개 공공기관(해양경찰교육원 제외) 가운데 13곳이 정착하는 '신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새로운 주민들을 위해 미술 장식품 설치, 녹지 및 숲 증설, 편의시설 배치 등의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공정률 어느새 82.6%~10곳 100% =을 상반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4곳에 이어 하반기 이전

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 등 7곳이 혁신도시 내에 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편의 및 유통시설의 미흡, 인근 도로와의 연계 불편 등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나 도시 내 거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생기가 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1월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전체 이전기관 직원 6909명 가운데 올해까지 6160명이 이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달 말 LH임대아파트 입주, 하반기 공공기관 이주 등이 본격화되면 지난 5일 현재 1648명에 머물고 있는 혁신도시 거주인구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들 공공기관들이 지역연계사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나주시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지역발전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달에만 전력거래소 등 3곳

12월엔 한전 KDN '동지'

나주시·전남도·광주시·LH

미술 장식품 설치·녹지 확대

도시경관·주거환경 조성 박차

다는 지적도 있다.

올 하반기 이전이 예정된 기관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전 인원 322명), 한국농어촌공사(732명), 한국전력거래소(302명), 한전 KPS(482명), 한국전력공사(1425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88명), 한전 KDN(944명) 등이다.

◇미술 장식품 설치, 녹지 증설 등 경관 변모 = 나주시와 전남도, 광주시, LH공사 등은 오는 16일 혁신도시 내의 숲 조성 확대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내외 숲(녹지)의 보완·확대 조성, 주변 숲과의 녹지축 연결 방안, 임주기관 및 지역주민 등의 숲 이용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내 녹지율은 25%로, 138곳 182만㎡의 녹지에 동백나무 등 81종 128만5000그루의 나무가 식재돼 있으며, 혁신도시 내 도로 32.8km 구간에는 소나무 등 18종 5119그루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

관계기관들은 이달 중순까지 혁신도시 녹지 확충을 위한 도시숲, 가로수 등 사업대상지를 조사한 뒤

■ 공공기관별 나주혁신도시 이전 현황

기관명(소관부처)	이전인원(명)	부지면적(㎡)	이전일(예정일)
에너지 (4)	6,909(6,763)		
한국전력공사	1,425	149,372	2014.11
한전KDN	944	56,258	2014.12
한전KPS	482	52,894	2014.10
한국전력거래소	302	44,119	2014.9.26~10.5
농생명 (5)			
한국농어촌공사	732	115,466	2014.9.22~9.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3	35,702	2015.6
농식품공무원교육원	66(41)	71,185	2013.12.22
농수산식품유통공사	322	18,757	2014.9.15~9.19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77	5,419	2015.12
정보통신 (4)			
우정사업정보센터	816	49,544	2013.3.3
한국인터넷진흥원	509	23,613	2015.12
국립전파연구원	142	34,402	2014.6.3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40	23,933	2014.3.2
문화예술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4(105)	9,193	2014.4.24
한국콘텐츠진흥원	171	10,508	2014.6.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88	10,919	2014.11

내년 초 혁신도시 내의 주변 자투리땅, 도로변 공터 등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미술 장식품들도 도로 곳곳에 선을 보이고 있다. 11월 이전 예정인 한국전력공사 본사 신사옥 앞에는 1억5000만원 상당의 '에너지 튜브'가, 한 상업시설에는 2억7000만원 상당의 작품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16개 이전 공공기관장 등 19명으로 구성되는 '빗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 협의회'도 10월 중 열린다.

협의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및 협력업체 지역유치,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지역사회 소통 등 지역융화 사업 등에 나서게 된다.

박수철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혁신도시 시는 그동안 정체된 광주시, 전남도에 있어서 분명한 기회인만큼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는 차별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서둘러 도시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1일 오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앞에서 인부들이 조경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2일 입주를 시작해 29일부터 정식업무에 들어간다. /김진수기자 jeans@

담뱃값 2000원 올리면 세수 2조 8000억 늘어나지만

지방세수는 年 200억 줄어든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담뱃값 인상방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세수가 전체적으로 2조8000억 늘어나지만 세수 증가분이 대부분 국세로 산입돼 지방세 세수는 되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1550원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에 따르면 2500원짜리 담배 1갑에 매기는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는 현재 962원에서 1450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담배 가격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는 연간 기준으로 오히려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담뱃값에 따른 흡연을 시뮬레이션 결과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이 경우 담배소비세는 연간 1000억원 늘지만 지방교육세는 1200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지방세수가 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신설된 데다 기존 세금의 인상 폭이 워낙 커서 담배소비량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세수가 늘지만, 지방세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비량 감소에 따라 세수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역알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담배소비세 인상에 기대를 걸었던 안전행정부는 실망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담배소비세 예상 증가분 1000억원원은 작년 징수액 2조7824억원(잠정)의 4%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간 안전부는 담배 중량에 따라 매기는 담배소비세를 가격 연동제로 바꾸고, 담배가격에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방안을 줄곧 추진했다. 그러나 국세인 개



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가격연동제도 개별소비세에만 적용하기로 정부 안에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세수 증대 효과 2조8000억원의 대부분은 국세 몫이 됐다. 다만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가 신설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교육세 감소분을 보전하고도 추가로 약 3000억원이 확보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은 세수와 연결시켜 논의할 정책이 아니다"면서도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협뉴스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개의 헌책방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로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선언하고 나선 뒤로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민 모두가 서점 주인이다.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얘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